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FEBRUARY
Vol.241

뉴노멀 시대 선도하는
Digital 변혁의 파트너

삼성 KPMG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변화를 주도하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우리 기업들의 빛나는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개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했고,
한국 기업의 500여 곳이 CES 혁신상 3분의 1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뛰어난 기술력이 세계에서
더욱 빛을 발휘하도록 삼정KPMG가 함께하겠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 가도를 달리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CES 2023을 통해 본
미래 산업 트렌드

08 Market Reader

본격화되는 이커머스 시장의
생존 경쟁과 기업의 전략

10 Team Story

기업의 백년대계를 지원하는
지배구조 TF팀

12 Client+

반도체 오염제거 솔루션 Global No.1
강소기업 '저스팀'

14 Expert's Advice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18 삼성동호회자랑

나이스샷!
골프로 화합의 꽃 피우는 '삼성골린이'

20 삼성인톡

삼성인을 변화시킨 영화 속 명대사는?

22 인재양성소

졸업을 축하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삼성인들의 포부는?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신(新) 토끼 사냥술

26 心 Care

임포스터 증후군의 증상과 완화법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부담감을 자기확신으로 바꾸기

28 Samjong News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발간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 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ES 2023을 통해 본 미래 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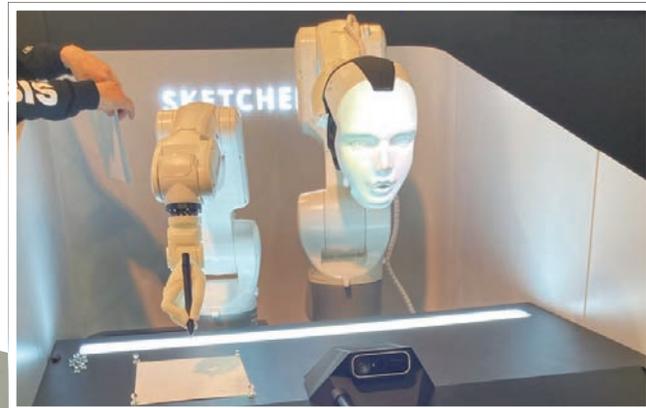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첨단 기술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종합 ICT 전시회이다. 올해로 56회를 맞이한 CES 2023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본격 정상 개최되며 ‘BE in IT(빠져 들어라)’이라는 슬로건하에 진행됐다. 전 세계 173개국 11만 5천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 기업 수 3,200개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한국 기업은 550여 개가 참여하며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였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CES 2023을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레디케어'



국내 스타트업 XORBIS - AI 기반의 자연어 이미지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초상화를 그리는 로봇 'Sketcher X'



BMW - '노이에 클래스(Neue Klasse, 뉴 클래스)'로 불리는 차세대 전동화·디지털화 차종의 밑그림 발표. 전기차 콘셉트 'i Vision Dee' 공개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빅블러 시대, 빅테크 기업의 모빌리티 영향력 확대

올해 CES에서는 빅블러(Big Blur) 시대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났다. 산업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밸류체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향한 전략을 선보였다. CES 2023에서는 ▲모빌리티 ▲로봇·AI(인공지능) ▲메타버스·Web 3.0 ▲초연결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그린테크 ▲스페이스 테크(Space Tech) ▲푸드테크(Food Tech) ▲스타트업 등 9대 트렌드가 부각됐다.

전체 참가 기업 중 10%에 육박하는 300여 개 기업이 자동차 관련 기업(완성차기업 및 자동차 부품사)으로 CES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 오토쇼'라고 불릴 만큼 모빌리티 기업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전세가 확대됐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이 모여 있는 모빌리티관(LVCC West Hall)에 부스를 열며 본격적인 모빌리티 비즈니스로의 확장을 알렸다. 구글은 음성 명령으로 차량 제어·구동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 체험 공간을 모빌리티관 인근 야외 부스에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차량 소프트웨어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량 구입의 미래를 제시했다. 아마존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 '아마존 for 오토모티브'를 공개하며, AI 기반의 알렉사 차량용 서비스를 소개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완성차기업과 현대모비스, HL만도, ZF(독일), 발레오(프랑스) 등 자동차 부품사의 참가도 두드러졌다. 스텔란티스는 CES 2023 기조연설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의 스텔란티스 비전과 넷제로 이행계획을 설명하며, 스텔란티스 산하 자동차 브랜드 램(RAM)의 전기 픽업트럭 '램 1500 레볼루션' 콘셉트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역시 가전 외에도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공개하며, 전장 자회사 하만과 협업해 만든 '레디케어'와 '레디툼'을 선보였다. '레디케어'는 삼성전자의 초연결 기술과 하만의 전장 기술이 합쳐진 것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체크해 운전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레디툼'은 차량에 내장된 스피커나 앰프를 따로 교체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통해 라이브 테마·클럽 테마 등 다양한 음향 청취가 가능한 기술로 완성차·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로레알 - 화장을 해주는 자동 메이크업 로봇 'HAPTA'

인간의 신체활동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로봇 부상

로봇·AI 관련 혁신 제품 또한 CES에서 진일보를 보였다. 특히 인간의 신체활동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로봇이 부각됐다. 독일의 German Bionic Systems는 상·하체에 부착되는 웨어러블 로봇 'Cray X'로 이용자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약 30kg 증가시켜 육체 노동자의 피로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일본 스타트업 Archelis는 서 있는 자세에서 하체에 가는 무리를 덜어주는 입는 로봇을 전시했다. 장시간 서 있는 환경의 공장 노동자나, 일어서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있는 의료 현장 등의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 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로봇 기술 개발 또한 돋보였다.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L'Oréal)은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등을 위해 메이크업을 지원하는 자동 메이크업 로봇 'HAPTA'를 선보였다. 아울러 인간과의 교감을 기반으로 인간의 역할을 지원하고 일부 대체하는 AI의 활용 사례 또한 눈에 띄었다. 로봇·AI 기업 Aeolus Robotics는 양팔을 움직여 노동을 제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aéo'를 공개했다. 'aéo'는 양팔로 서로 다른 동작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팔로 최대 8파운드의 물건을 들 수 있어 청소, 노인 돌봄, 경비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니·혼다·모빌리티 - 소니와 혼다가 협력하여 만든 첫 번째 전기차 '아펠라(Afeela)'



독일 로봇 업체 German Bionic Systems - 웨어러블 로봇 'Clay X'는 이용자가 지탱하는 무게를 30kg 증가시켜 노동자의 피로를 절감할 수 있음
Source: CTA CES 2023



로봇 스타트업 Aeolus Robotics - 양팔이 서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 'aéo'



CES에서는 처음 거론된 ‘메타버스·Web 3.0’, 실질적 비즈니스·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 공유

CES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CES 주최 측인 CTA(미국소비자기술 협회)가 내세운 공식 주제로 ‘메타버스·Web 3.0’이 올해 처음 추가됐다. CES 본격 시작 직전, 미디어를 대상으로 CTA 측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CES 2023 테크 트렌드’ 발표에서 CTA 스티브 코닉 부회장은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있다”고 강조하며 ‘Maas(Metaverse as a Service)’와 ‘MoT(Metaverse of Things)’ 등 신조어를 선보이기도 했다.

Web 3.0 시대에서 메타버스 관련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각 영역의 고도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CES 2023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다양한 디바이스와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였다.

먼저 소니는 전작을 내놓은 후 7년 만에 ‘플레이스테이션(Play Station) VR2’ 기기를 공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고사양 OLED 디스플레이와 3D 오디오 기술, 시선 트래킹 등 진화된 기술이 탑재된 VR 헤드셋을 통해 몰입감 높은 게이밍 환경 구현에 나섰다. 메타버스의 시각을 위한 디바이스 외에도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촉각, 후각 구현을 하는 디바이스가 등장했다. 국내 스타트업 비햅틱스가 선보인 ‘Tactsuit’에는 40개의 햅틱 포인트가 장치해있고, ‘Tactglove’에는 손가락과 손목에 12개의 리니어 진동모터가 장치하여 촉각 기반의 VR 경험을 전달하도록 했다. 후각 기능을 구현한 VR 기기로는 미국 스타트업 OVR Technology가 얼굴의 코까지 덮는 VR 기기를 선보였다. 사용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면 영상과 연동된 다양한 향을 맡도록 구현했다. 이처럼 CES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다양한 기술적 인프라, 디바이스가 공개된 것과 더불어 메타버스를 실질적 비즈니스 모델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났다.

미국 스타트업 OVR Technology - 후각적 요소를 연동한 VR 기기 ‘아이온’. 다양한 향을 맡도록 구현



LG전자 - ‘LG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 신발을 관리·보관하면서 전시·감상하는 미적 기능 강화



가전·전자 업계 화두는 ‘초연결’

올해 CES에서는 가전 기업의 주안점이 연결성으로 옮겨 가서 ‘초연결’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CES 2023에서 가전 기업들은 무엇 이든,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연결해 소비자 일상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쉽게 연결된 기기들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삼성전자는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SmartThings’ 허브가 내장된 냉장고 ‘비스포크’와, 무선 충전 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SmartThings Station’을 선보였다. 소비자가 휴대할 수 있는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집안의 TV,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통해서도 고화질 콘텐츠를 지연없이 촬영하고 시청하고 공유하는 연결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일상 속 가전인 동시에 IoT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제품을 통해 ‘초연결 스마트홈’ 트렌드를 부각시켰다.

LG전자는 IoT 플랫폼 ‘LG ThinQ’를 통한 연결성을 강조했다. 타사 제품까지도 ‘LG ThinQ’를 통해 연동하는 모습을 시연하며, 디바이스 연결성 확대 트렌드와 자사 IoT 플랫폼을 통한 고객 경험을 소개했다. 아울러 가전제품 구매 후에도 LG ThinQ 앱을 통해 신규 기능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ThinQ 업(UP)’ 가전을 전시했다. 가전 연동을 넘어 다양한 업그레이드와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확장하는 개념인 ‘업(UP)가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어젠다로 정착

최근 몇 년간 CES의 혁신상 중 많은 수상작을 배출한 분야로 ‘헬스케어’가 떠올랐다. 올해에는 CES 혁신상 대거 수상뿐만 아니라 주요 전시장 중 한 곳(LVCC North Hall)의 테마에 ‘디지털 헬스’가 포함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본격 도래를 입증했다.

SK바이오팜 -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로 글래스TM’(좌)·‘제로 와이어드TM’(우). 뇌파 등 신경계 관련 데이터 확보·분석 서비스



CES 2023 주요 트렌드와 이를 통해 본 미래 산업 전망

<p>① 모빌리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차 기업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자율주행, 전기차,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신기술 제시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자동차 밸류체인 안에 진입하며, 자동차 산업의 Servitization 및 융복합 동향에서 Biz. 기회 모색 	<p>② 로보틱스·A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신체 능력을 증진하고 신체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봇 기술 활용 부상 인간과 교류하고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고도화된 AI(인공지능)가 접목된 로보틱스 등장 	<p>③ 메타버스·Web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출품 및 관련 서비스 제시 교육, 엔터테인먼트, 쇼핑과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실제 활용 성과 및 가능성을 선보이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성장 잠재력 시사
<p>④ 초연결 스마트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속 사물의 디지털화, 로봇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제품·브랜드 간 연결성 또한 강조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홈 제품의 기능적, 미적 역량 강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p>⑤ 디지털 헬스케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스케어 관련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패치 등의 발달로 메디컬 데이터 확보 역량의 강화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 부각 	<p>⑥ ESG·그린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S 참여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본 토대로 삼으며, 제품·서비스 전체 라이프사이클에서의 ESG 혁신을 강조 CES 2023 테마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부상하며, 인권·복지 인류에 강조
<p>⑦ 스페이스 테크 (Space Te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 공간을 활용한 스페이스 테크 기술을 일반 사용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등장 우주 공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스마트폰을 위성에 연결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스페이스 테크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 	<p>⑧ 푸드테크 (Food Te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D&A(Data & Analytics) 등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 산업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신제품 등장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가공, 조리, 외식·배출, 음식물 폐기물의 친환경적 활용까지 식품 밸류체인 전반에 신기술 적용 	<p>⑨ 스타트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S 2023 참가 국내 업체 수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이중 60% 이상이 스타트업 정부기관, 대학과 더불어 삼성, LG, 현대차그룹,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이 투자·육성한 스타트업 또한 다수 참가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은?

① 글로벌 기업의 타 업종으로 확장 가속화, 기회와 위기 공존

② 메타버스 등 하이브리드 기술 고도화, Web 3.0·메타버스의 Monetization 전략 본격 수립

③ ESG·인간 안보·지속가능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가속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달로 CES에서는 입거나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외에도 몸에 붙이는 ‘패치형’, 몸 안에 심는 ‘임플란트형’의 기기가 선보였다. 다양한 메디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를 연계한 건강관리와 치료 기술이 주목받았다. 건강·의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관리와 응급상황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되며,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넘어 치료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이번 CES에서 두드러졌다.

CES 2023으로 본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은?

CES 2023으로 내다본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의 다른 업종으로 진입 가속화’이다. 이번 CES 2023에서 빅테크 기업이 모빌리티 사업으로, 모빌리티 기업이 AI 사업으로, 가전·디바이스·소비재 기업은 로봇·AI, Web 3.0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초불확실성 시대에서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고민하고, 가속도를 내며 변화하는 산업 밸류체인 내에서 협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둘째, ‘메타버스·Web 3.0의 머니타이제이션(Monetization) 전략 강화’이다. 메타버스로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수익 창출을 둘러싼 기업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ESG·인간 안보·지속가능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이다. 이번 CES에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부각되면서, ESG의 E(환경) 관련 그린테크 외에도 S(사회) 관련 인간 안보를 위한 인류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사회적 가치 증대 기술이 주요 어젠다로 부상했다. 넷째로 필두로 한 그린테크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의 윤리적 활용, 인간의 여러 위기를 타개하여 인류 복지·안녕을 위한 휴먼테크의 기술적 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CES 2023에서는 타 산업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발 빠른 행보를 볼 수 있었다. 초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2023년 신년 벽두에 열린 CES는 “위기가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혁신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CONTACT US |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el. 02-2112-6744 / E-mail. hyojunglee@kr.kpmg.com



본격화되는 이커머스 시장의 생존 경쟁과 기업의 전략

성장세를 거듭하던 이커머스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엔데믹 국면 가시화로 소비자가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며 이커머스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현주소와 경쟁 양상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커머스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플레이어 간 M&A가 활발하다. 초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G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 1·2세대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되며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는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SSG닷컴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1세대 대표 이커머스 주자인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오픈마켓 사업자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고 단숨에 선두 대열에 합류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놀자는 공연 티켓 예매·여행 예약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부문을 인수하면서 온라인 여행 시장에서 지배적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M&A를 통한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락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커머스 기업의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독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유료 멤버십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쿠팡은 '로켓와우', 네이버쇼핑은 '네이버플러스', SSG닷컴은 '스마일클럽', 11번가는 'T우주패스'를 자사 유료 멤버십으로 두고, 무료배송, 콘텐츠 구독, 포인트 제공 등 각종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를 자사 활성 고객으로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간편결제를 둘러싼 경쟁도 한창이다.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이커머스 기업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락인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이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시장의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입고 20% 내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커머스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2021년 5월 25.0%에서 2022년 10월 8.2%, 11월 7.3%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커머스의 성장세 둔화는 엔데믹 국면이 가시화되고 소비자의 수요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결과이다. 고물가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위축과 전체 유통 시장의 40% 수준의 높은 온라인 침투율도 이커머스 시장 둔화를 야기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에 더해 포화상태에 이른 온라인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과 주도권 경쟁

저성장 국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려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커머스

이커머스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	이커머스 1.0	이커머스 2.0	이커머스 3.0	이커머스 4.0
형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공동구매)	버티컬 커머스	슈퍼앱
특징	다수의 셀러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만나 제품·서비스를 거래하는 형태. 플랫폼의 역할은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중개에 한정됨	하루에 제한된 수량의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자 수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구매 단가를 대폭 할인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카테고리 킬러 형태의 플랫폼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예매, 쇼핑, 결제, 송금, 콘텐츠 시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주요 플레이어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티켓몬스터, 그루폰, 위메프,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에이블리, 정육각, 오늘의집 등	네이버, 쿠팡
핵심 경쟁력	가격	가격	취향	편리함



이커머스 기업은 시장 내 명확한 포지셔닝을 통해 차별화를 도모하고, 지배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힘써야 함

√ 버티컬 커머스는 카테고리 내 수직적 통합으로 밸류체인 확장 및 전문성 강화를 추구하고 섹터 내 지배적인 플랫폼 입지를 구축해야 함
 √ 종합 이커머스 기업은 슈퍼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 등 빅데이터 확보도 가능하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네이버쇼핑, SSG닷컴, 롯데온,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은 앞다투어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편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이커머스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업계 내 물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주요 이커머스 기업은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 품질 보장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쿠팡과 SSG닷컴은 직접 물류로 물류를 내재화하고 로봇 기술을 도입한 첨단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다양한 물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NFA(Naver Fulfillment Alliance, 네이버 풀필먼트 연합체)’를 구축했고, 롯데온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1조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기업의 전략적 방향은?

이커머스 기업은 이제 단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넘어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매-

결제-배송’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통합적 락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성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중고거래, B2B 비즈니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승자독식 구조의 이커머스 시장 내 빅플레이어 간 경쟁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CONTACT US

전자정보통신미디어산업본부
박홍민 상무

Tel. 02-2112-3283
E-mail. hongmin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차윤지 책임연구원

Tel. 02-2112-6914
E-mail. yoonjicha@kr.kpmg.com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백년대계를 지원하는 지배구조 TF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던 기업들도 경영권 승계 및 외부투자 유치, 계열 분리, 핵심 사업의 경영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악화되곤 한다. 지배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기업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지연 및 부재로 핵심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이에 삼정KPMG는 지배구조 TF팀을 운영하며 기업들이 지배구조 안정화를 통해 핵심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지배구조 개편 증가,

경험과 전문성 갖춘 자문사 시각 필요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사업·지배구조 개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지배구조 개편 시 해당 그룹 및 회사는 회계, 세무 및 자본시장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편은 주주, 종업원, 채권자, 감독기관 등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매우 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개편 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이슈를 사전에 확인 및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준비하는 사전 검토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자칫 무턱대고 개편을 진행하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거래 주체인 기업을 비롯해 주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분할 또는 합병을 활용한 구조 개편

을 단행할 경우에는 세무상 적격분할 또는 적격합병 등 적격 구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격 구조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및 주주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세무상 적격 구조조정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탄한 자문 업무 경험과 노하우로 지배구조 개편 리딩!

삼정KPMG는 지난 2007년부터 지배구조 TF팀을 운영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 사업구조 개편, 소유지배구조 개편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비상장회사에서 상장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에 자문 업무를 제공해오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시 회계 및 세무 이외에 다양한 법률과 자본시장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삼정KPMG는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단순 회계 및 세무 자문이 아닌, 지배구조 개편 업무를 리딩(Leading)할 수 있다. 아울러, 프로젝트 전

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실무진이 먼저 찾는 자문사로! 업계 Big1으로 나아갈 것

삼정KPMG 지배구조TF팀은 지배구조 자문 시장에서 Big2에 만족하지 않고 Big1 자문사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기업이 변화하듯이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법률(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과 각종(거래소 규정 등) 등도 변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 실무 경험 축적을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자문사로 거듭나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회계/세무 자문이 아니라 구조개편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회사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무진이 선호하는, 실무진이 먼저 찾는 자문사가 되고자 한다.

지배구조 TF팀의 주요 서비스

- ①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분할, 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자문 업무
-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자문 업무
- ③ 사업구조 개편 타당성 검토 업무
- ④ 경영권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업무 등

지배구조 TF팀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한상일 부대표 (팀 리더)
sangilhan@kr.kpmg.com

지배구조 개편 이후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Feasibility 검토 이후 실제 자산 매각 시 Valuation,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이후 시스템 통합 등 개편 이후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삼정KPMG는 타 자문사와 달리 그룹 내 타 Function과의 원활한 협업으로 여러 이슈를 해결하고 있을 뿐더러, 사전에 이러한 이슈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지배구조 TF팀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지훈 상무
jihunjang@kr.kpmg.com

고객은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유사 사례를 함께 살펴볼 때 큰 만족과 신뢰를 얻습니다. 이에 우리 팀은 고객에게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팀을 통해 타 Function 전문 분야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이는 Tax 자문 품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현진 상무
hchung@kr.kpmg.com

지배구조 개편의 니즈(Needs)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우리 팀의 강점입니다! 차별화된 인사이트로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정욱 상무
jungwookdo@kr.kpmg.com

모든 것은 변화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사업 구조개편도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Mind로 고객과 함께 구조개편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Mind와 리딩 경험이 우리 팀의 강점이자 타법인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오염제어 솔루션 Global No.1 강소기업 ‘저스템’

주식회사 저스템(대표이사: 임영진)은 반도체 장비의 수율 향상 모듈인 LPM(Load Port Module)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개발 회사다. 지난 2016년 창업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오염제어 솔루션 부문에서 글로벌 Top tier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국내외 종합 반도체 기업(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을 대상으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 2021년까지 CAGR 기준 35%라는 독보적인 성장률도 기록하고 있다.



1

저스템 파워의 원천은 연구소와 기술력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JFS U1'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

저스템의 파워는 연구소에서 나온다. 전체 임직원의 30%에 달하는 인력이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회사도 매년 매출액의 8%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태양광 분야 등 성장산업에 필요한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며 풍성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실로 저스템 연구소는 2020년 과학기술통신부 주관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됐다. 또한 2021년에는 세계공급망 가치사슬의 급변에 대응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선정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저스템은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반도체 오염제어 솔루션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를 과제로 선정, 중소기업혁신과제 해당 국책과제로 지원받으며 마침내 2023년 1월 반도체 보관함(FOUP)의 습도 균일도를 1%로 유지할 수 있는 'JFS U1'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직전 단계기술인 JFS U5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자체 특화된 Laminar Flow를 결합해 타사와 차별화된 습도제어 솔루션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 공정이 극도로 미세화되고 향후 3세대 반도체 개발과 더불어 습도제어의 산업적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회사는 이 솔루션이 제2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저스템은 핵심기술인 열 플라즈마 응용기술, 진공대응기술, 자동화기술 등을 응용, 핵심공정



2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첨단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인근 책임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대상에 선정돼 그 역량을 평가받은 바 있고 관련 신사업 또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스템의 신사업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설계됐다. 회사는 지난해 용인 기흥구 공세동에 신사업장을 짓고 디스플레이 전용 FAB, 반도체 전용 FAE, 기술연구소 등을 마련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직원과 그 가족이 행복한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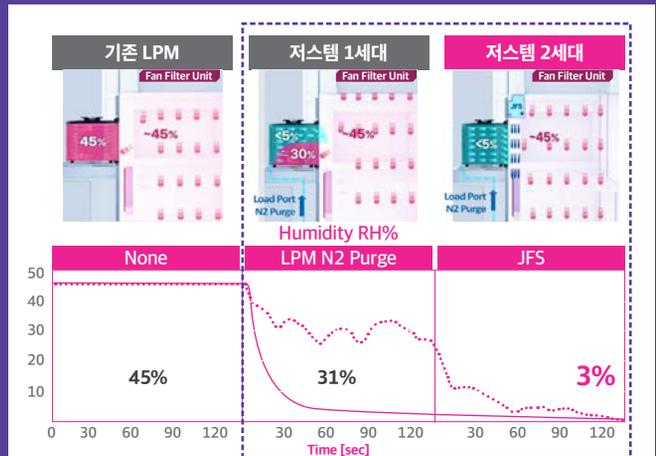
저스템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가동

‘직원과 그 가족이 행복한 회사’ 임명진 대표의 경영철학이다. 임 대표는 주주의 가치 제고와 함께 직원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회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경영자로서 최고의 미덕이라 여긴다. 임 대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직원들도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핵심인재제도, 성과보상제도 등 우수한 인재가 인정받고 능력과 노력이 평가받는 체계적인 인사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저스템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동아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맺어 졸업 이후 군 복무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스템은 2022년 10월 창업한 지 7년 만에 코스닥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첨단기술력을 지향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몰입하며 직원과 그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는 전 임직원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임 대표는 ‘지금 시작’이라는 초심을 늘 간직하고 있



**JUSTEM
오염제어
솔루션 및 효과**

웨이퍼 습도 제어를 통해 이물질/반응성 Defect를 차단



다고 말하며 ‘미래의 성장을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ESG 경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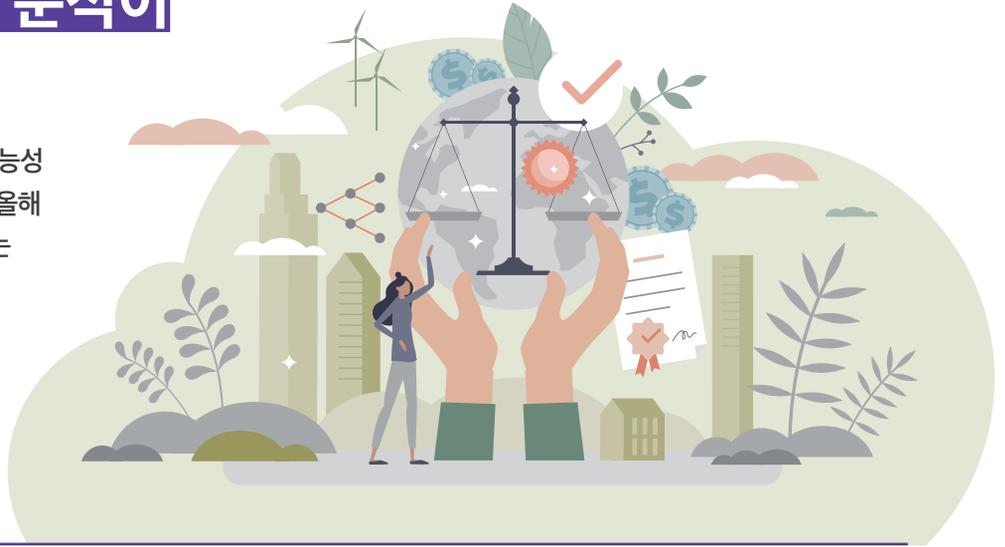
저스템은 2018년부터 위기영아 보호시설인 주사랑공동체에 후원을 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로 위기에 놓인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미혼부모 가정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재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의 봉사활동은 어렵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다양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

1. 지난 2022년 5월에 신축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저스템 사옥
2. JFS U5 담당 연구원인 우인근 책임 연구원이 2022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대상’을 수상했다
3. 2022년 10월 코스닥 상장 기념 사진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해 7월 의견수렴을 마치고 올해 초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다.



Q1 기후 관련 재무영향 공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ISSB에서 요구하는 재무영향 공시는 정보이용자가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중장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예상 영향과 더불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기업의 재무계획에 고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후 관련 위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Climate resilience)을 공시하기 위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도 유사성이 매우 높은 항목입니다. 이러한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지는 직관적으로도 쉽게 예상될 것입니다. 참고로, US SEC의 기후 관련 공시법안에서는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하여 외부감사까지 받도록 요구하는 점은 그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Q2
이 공시를 통해 얻는 이점은 무엇가요?
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재무영향 공시를 통

해 회사 경영진이 기후 이슈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재무영향 분석 모델을 개발하면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 관련 사건을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재무회계보다는 관리회계시스템과 연동되어야 기업의 ESG 전략과 일관성 있게 연계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Q3 이 공시에 대해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후 관련 위험은 재무제표에 직접 인식될 수도 있고,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 또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여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될

니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40% 감축 가정 시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을 재무영향 분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이러한 재무영향이 현행 재무제표상에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불확실한 미래 정보의 취급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기존 명확한 재무보고보다는 더 유연한 관점과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의 입증 책임을 부담시켜서 재무영향 분석을 경직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기준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경영결과가 아닌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중심입니다. 기업들은 재무영향 분석과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를 통해 ESG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김진귀 전무

Tel. 02-2112-0223

E-mail.
jinkwi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2022년 11월 28일 게재된 내일신문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은 왜 중요한가'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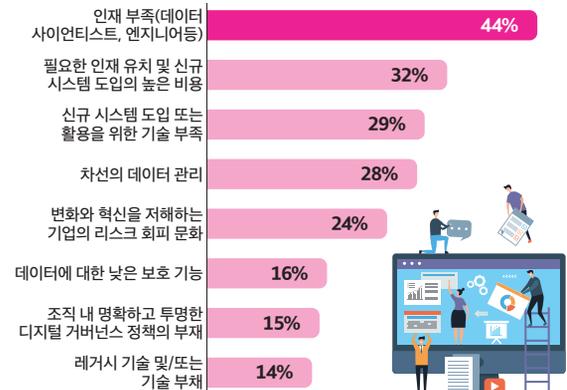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최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 중이다. 또한, 올해 경기 후퇴가 일어나면 미국에서는 부유층보다 서민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맛있는 경제'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를 배워보려 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글로벌 기업 임원, 디지털 기술 수용 시 도전 과제로 '인재 부족' 꼽아

KPMG Global의 'Global tech report'에서는 글로벌 기업에서 테크 업무를 하는 2,200명 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전례 없는 시장 변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 전략을 분석했다. 글로벌 테크 리더들은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Web 3.0, 메타버스, 양자컴퓨팅 등의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할 때 어려움과 도전 과제에 대한 테크 리더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살펴봤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재 부족(44%), 신규 시스템 도입의 높은 비용(32%), 변화를 저해하는 기업의 리스크 회피 문화(24%) 등으로 꼽혔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로코노미 (Lo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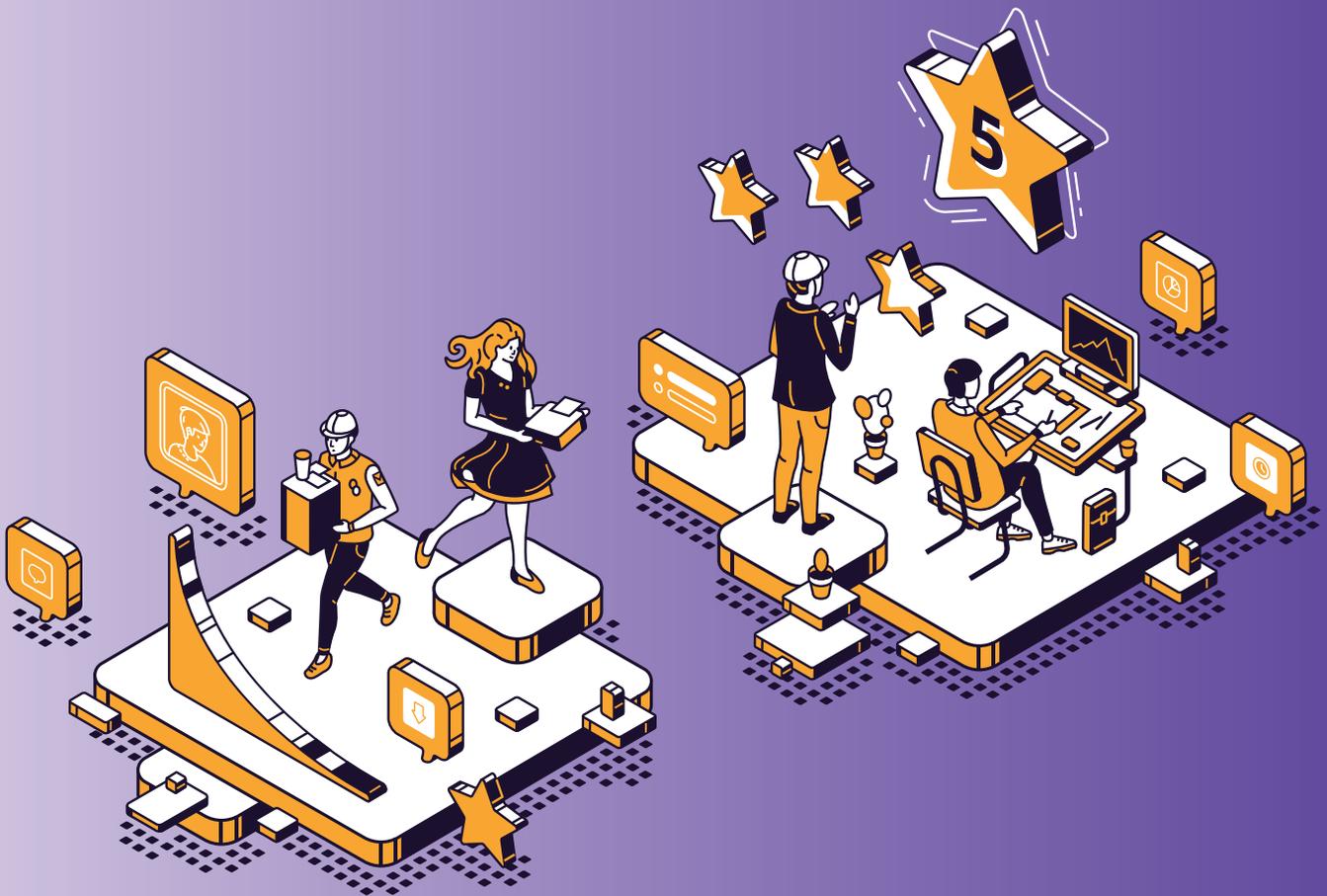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합성한 신조어로, 거대 상권이 아닌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과 가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현상이다. 코로나19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국내 여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로컬=힙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제품명이나 가게 이름에 지역명을 붙이거나 로컬을 주제로 한 음식, 굿즈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 역시 지역 경제에 일조한다는 의미에서 ESG 경영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편의점업계의 경우 이마트24는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성주 참외콘', '부산 씨앗호떡콘'을 출시했으며, CU는 전라북도과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였다. 주류업계도 '여수 밤바다' 등 지역색을 입힌 제품을 내놓고 있다.

리치세션 (Richcession)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경우, 예년과 달리 고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리치세션 전망이 나왔다. 리치세션은 부유층(Rich)과 경기후퇴(Recession)의 합성어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불황 때는 통상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지만 이번에는 저임금 일자리가 넘치는 반면 고소득 일자리 중심의 감원과 주가 급락으로 부유층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3분기 현재 미국 상위 5%의 자산은 주식 하락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7.1% 줄었는데, 이는 불황에 대비할 자금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재계에서 확산하는 정리해고도 고연봉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최근 고용시장 활황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했으며,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사정이 개선됐다는 평이다.

Happy workplace



삼정동호회자랑

나이스샷!
골프로 화합의 꽃 피우는 '삼정골린이'

18

삼정인톡

삼정인을 변화시킨
영화 속 명대사는?

20

인재양성소

졸업을 축하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삼정인들의 포부는?

22

이동규의 두줄칼럼

신(新) 토끼 사냥술

24

心 Care

임포스터 증후군의 증상과 완화법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부담감을 자기확신으로 바꾸기

26

Samjong News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발간 外

28



나이스샷! 골프로 화합의 꽃 피우는 '삼정골린이'

삼정KPMG는 총 12개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삼정인들의 워라밸과 동료들 간의 친목 도모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삼정동호회자랑'으로 12개의 동호회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 첫 순서로 최근에 개설되어 활발히 운영 중인 골프 동호회 '삼정골린이'를 만나본다.



삼정골린이의 첫 모임 후 뒷풀이 현장에서



2022년 송년회에 모인 삼정골린이 회원들의 단체 사진



'삼정골린이'는 2022년 10월에 개설된 신설된 골프 동호회이다. 법인이 추구하는 'People First'를 마음 깊이 공감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설된 동호회로, 본부를 뛰어 넘는 법인 내 다양한 직급 간 소통 창구로 운영 중이다. 현재 권영민 부대표(B&F3)가 고문을 맡아, 아낌없는 조언과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으며, 문희상 Senior(B&F3)가 회장으로 활동하며 동호회를 꾸려가고 있다. 지금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 문희상 Senior를 비롯해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현승 Director(B&F3), 이지수 Manager(MCS2), 오동환 Manager(B&F3), 이수영 Manager(B&F2), 이현아 Senior(B&F1)를 만나 삼정골린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1년도 안 된 신설 동호회이지만, 열정과 열기가 한가득!

문희상: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골프 동호회이지만, 열기만큼은 그 어느 동호회보다 뜨겁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를 올린 지 약 한 달 만에 70명이 넘는 인원이 동호회에 가입했고, 무엇보다 27개의 다양한 본부에서 Senior 이하의 직급이 60%를 구성하는 젊은 동호회입니다.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동호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필드 라운딩과 파 3 연습장도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섬과 같은 다양한 골프 진행 방식을 통해 골프 초보자분들도 편히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2022년 송년 모임 겸 포섬 플레이를 진행했는데, 특별히 김교태 회장님께서 참여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기억에 남아요. 많은 회원분들이 회장님과 직접 소통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삼정골린이’로 실력과 친목 두 마리 토끼 잡아요!

이지수: 저는 아직 백들도 되지 못하는 골린이 중 골린이입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제 부족한 실력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또 다른 분들께 그로 인해 피해를 드리게 될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한 번 참여했다니 정말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응원을 계기 삼아 오히려 올해는 ‘90타 가보자!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모임도 많이 기다려지고, 좋은 분들과 골프를 더 꾸준히 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이현아: 저 역시도 비록 골린이지만, 열정만은 프로골퍼이거든요! 하하.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 삼정인분들과 함께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 더욱 시너지 창출될 거란 생각이 들어 활동하게 됐는데, 무려한 법인 생활 중 새로운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나 소소한 삶의 활력을 더한 기분이 들어요. 동호회 활동으로 골프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

아 좋습니다!

이수영: 맞아요! 우리 동호회의 가장 큰 매력은 나이와 성별, 직급, 본부 상관없이 자유롭게 골프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골프를 잘 치는 분들을 보고 배우면서 잃어버린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됐어요.

오동환: 저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겸 정기 모임으로 포섬 플레이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평소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같은 팀원분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많이 긴장했는데, 우리 팀원분과 상대 팀 분 모두 너무 친절하시고 매너도 좋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스코어도 평소보다 더 좋게 나와서 정말 기뻐요! 동호회 덕분에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서로 성장을 응원하는 동호회, ‘챔피언십’도 준비하세요!

이현승: 삼정골린이는 골프를 좋아하는 삼정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Staff부터 파트너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된 삼정골린이에 가입하시면 골프를 즐기는 삼정인들과 부담 없이 편하게 골프를 즐기실 수 있어요! 참석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여러 업무로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은 삼정인들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현아: 무엇보다 우리 동호회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임입니다. 첫 정모 때 저와 치열한 라이벌(?)이었던 매니저님은 지금 저보다 훨씬 잘 치시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삼정인 여러분, 삼정골린이 어서 Follow 하세요!

이지수: 정말 혼자만 치면 느끼지 못했을 골프의 재미, 저희 ‘삼정골린이’에서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라운딩하게 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이수영: 혹시, 골프 혼자 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해 보면 어떨까요? 함께 하면 실력도 수직상승 한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류해보지 못한 타 본부 동료들을 만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경험 또한 들어 볼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올봄에 열릴 ‘제2회 챔피언십 대회’에도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지속적인 활동과 교류 통해, Big4 대회 개최도 기대해!

문희상: 단기적으로는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파트너분들의 도움을 통해 동호회 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 소속 본부가 아닌 타 본부 파트너분들과 만나 교류하는 기회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장기 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스크린골프 동호회 운영 방식을 갖춰 Big4 스크린골프 대회를 추진하여 법인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많은 삼정인 여러분, 삼정골린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골프 동호회 ‘삼정골린이’ 문의

B&F3본부 문희상 Senior
(회장, heesangmun@kr.kpmg.com)
Digital Tech본부 김종현 S.Manager
(총무, jkim350@kr.kpmg.com)

삼정인을 변화시킨 영화 속 명대사는?

‘Channel’에서는 삼정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추억을 공유하는 ‘삼정인톡’ 칼럼을 새롭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매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삼정인들의 이야기를 들여보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새해 다짐을 떠올리며 삼정인들을 변화시킨 영화 속 명대사를 살펴봤다. 삼정인들이 인상 깊게 본 영화 속 명대사는 무엇일까?



“행복한 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이 아니라, 진주알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이 단순하고 작은 기쁨을 계속 가져다주는 날들이다.” - 애니메이션 ‘빨간 머리의 앤’

하루하루 나의 할 일을 해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변한 제 모습과 제 삶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선 S.Consultant (RCS)

“삶은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늘 실수를 하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두려움뿐이야. 누구나 뭐든 될 수 있어.” -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실수가 많고 업무도 어려워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큰 위로를 얻어 자 신감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노명준 Senior (B&F2)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나간 일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내가 먼저야.” - 드라마 ‘나의 아저씨’

예전의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들의 시선을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던 중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저를 강하게, 편안하게 변화시켜주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상대방의 시선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저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고, 강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정인호 Manager (IA)





"세상은 책과 지도로 보는 게 아니야. 세상을 직접 바라보아야지." - 영화 '알라딘'

실천하지 않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저의 Motto와 같은 명대사입니다. 예전부터 항상 실천하는 삶을 살았지만, 명대사를 통해 더욱더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를 보이려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전병철 Manager (MCS2)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미스터리,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현재)이라고 하는 걸세." - 영화 '쿵푸팬더'

어릴 적 본 영화 '쿵푸팬더'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사였습니다. 낙심하는 포에게 우그웨이 대사부가 '현재'와 '선물'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 'Present'를 활용해 전한 이 조언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어, 현재까지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역사일 뿐이니 연연하지 않고,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이니 미리 두려워하지 않고, 선물과도 같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용기 있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정원 Analyst (Deal Advisory1)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는 강백호의 명대사인데요, 전국대회 산왕공고전에서 선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부상을 입은 강백호가 끝까지 포기 않고 팀의 승리를 위해 경기에 뛰고자 하는 의지를 감독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농구에 관심도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던 강백호가 누구보다도 농구에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진지하게 임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 저 역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준열 Manager (IGH)



"희망은 좋은 것이죠.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 영화 '쇼생크 탈출'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그럴 때면 희망을 갖는 것이 가당치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9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적과도 같이 자유의 단비를 맞이하는 주인공 앤디를 생각하면서, 삶에는 희망이 있고, 세상에 좋은 것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홍섭 Associate (B&F3)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 영화 '인터스텔라'

일하다 보면 당연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돌파구를 찾아왔듯이, 영화의 대사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삼정인으로서 업무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진 Analyst (Deal Advisory2)

졸업을 축하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삼성인들의 포부는?

졸업 시즌인 2월을 맞이해서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은 삼성인들을 만나봤다. 대학교 생활을 모두 마치고, 사회인으로서 삼성KPMG에서 새로운 첫발을 내디디는 삼성인들을 만나 이들의 좌우명과 함께 앞으로의 힘찬 각오를 들어본다.



꽃피웠던 대학 시절 모습!

'때론 시간이 약이다' 크고 작은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 나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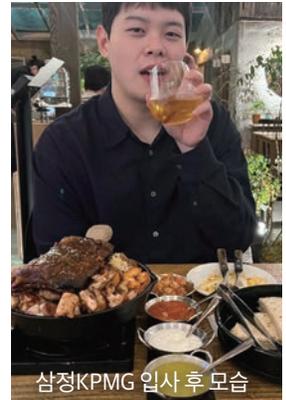
김시원 Associate (ICE3)

저는 6년간의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보낸 듯합니다. 목표 이상의 좋은 학교에서 원하던 전공을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고, 교환학생, 학과 홍보대사 등 원한 일은 모두 이뤄주요. 특히 회계사라는 오랜 꿈을 이루고 졸업하게 되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2년간 회계사 시험을 함께 해준 쌍둥이 동생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회계사 시험 합격과 입사가 한 달 안에 이뤄져서 새로운 변화 속에 지내고 있는데, 공부 동기들과 선배 회계사님 모두 좋은 분들이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문 교육 조원들과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며 즐겁게 법인 생활 중입니다. 저는 '때론 시간이 약이다'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장의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할 일을 해 나가면 어느 순간 발전한 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법인에서의 앞으로의 생활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크고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김성혁 Associate (IM2)

철 없이 들릴 수 있지만, 우선 대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과제와 시험, 그리고 팀플에서 벗어나서 좋습니다. 하하! 그리고 직장인이 되니, 대학생 때와 달리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20대의 대부분을 지낸 학교를 막상 떠나려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험 기간 밤새며 공부했던 기억,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떠난 여행 등 되돌아보니 낭만 있는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시원섭섭한 마음이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겨진 것 같아요. 저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을 보며 감명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하고, 메시는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니까요. 제가 요즘 기말 감사를 하며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선배 회계사님들에게 열심히 배워서 시즌이 끝났을 때 자신감이 한 층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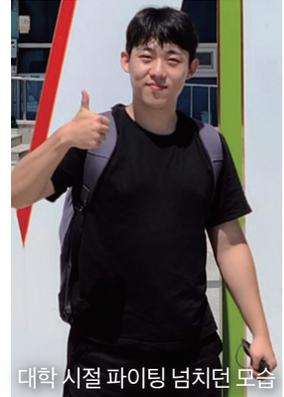


삼성KPMG 입사 후 모습

'항상 처음 마음가짐으로' 신뢰를 주고, 늘 성장하는 전문가로!

서준규 Analyst (Deal Advisory2)

항상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는 입장에서 막상 제가 누군가의 축하를 받으며 졸업하는 날이 오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보다 아쉬운 감정이 훨씬 큰 걸 보니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교에 다니며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축복받은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삼정인으로서,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게 되어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과 자신감을 갖고 입사했습니다. '항상 처음 마음가짐으로' 이 자신감과 꿈을 잊지 않고 항상 발전하며 성장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파이팅 넘치던 모습



라운지에서 회의하며 찰칵!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삼정인' 좋은 환경에서 멈춤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송한 Associate (Tax3)

첫 출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대학생이었던 제 모습을 한 조각 추억으로 접어두고 회계사라는 정체성을 하나씩 입고 있습니다. 나름 대학생 때 성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대학교에서 만난 다양한 친구들 간의 여러 생각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틀을 부수려고 노력한 덕분에 것 같아요.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함께 공부했던 도서관과 정경계 밥 먹었던 학교 식당과 밤바람이 선선했던 광장 등을 눈에 꼭꼭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값진 추억과 깨달음을 언제든지 꺼내 보려 합니다. 아직 제가 전문가로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기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요. 따라서 앞으로 저는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삼정인'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특히 거목들이 많은 삼정KPMG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좋은 환경 속에서 멈춤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하다!' 책임감을 갖고 성장해 가는 삼정인!

김정민 Consultant (Digital Tech)

2019년에 대학교 새내기가 되어 대학 생활을 즐긴 지 엇그제 같은데, 졸업이네요! 2, 3학년 때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을 해서 학교에 가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졸업 전에 삼정KPMG에 입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하고 싶던 컨설팅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 기대돼요. 제 좌우명은 '만난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인이 되어 만나게 될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삼정인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 가겠습니다.



대학교때 여행 중 찍은 추억 사진!



“세 마리 토끼를 잡아라
그래야 진짜 프로다”

신(新) 토끼 사냥술

두 마리 토끼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문제 (trade-off)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사회적 아젠다인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같은 문제다. 제조업의 전통적 딜레마인 품질 (Q)과 생산성(P)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러한 명제를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접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트레이드 오프의 역설

트레이드 오프(trade-off)란 원래 경제학 이론상 ‘이율배반’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

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다. 이러한 물가와 고용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이다.

경영학적으로 이상적으로 꿈는 제품 방정식이 있다. 예컨대 ‘가격은 싸게, 품질은 높게’가 그것이다. 이론적으로 품질(Q)을 올리기 위해선 비용(C)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종 가격(P)도 오르게 된다. 실제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이를 극복한 사례도 많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한 공공기관들도 좋은 사례다.

늘어나는 토끼들

역사란 정(正)과 반(反)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합(合)’이라는 생각의 무기로 잡아온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선 토끼 한 마리가 더 늘어나고 있다. 경제정책의 세 마리 토끼는 금리, 환율, 무역수지다. 경영관리에 있어선 매출, 이익, 고객만족도(CSI)이다. 골프도 드라이버, 아이언, 퍼팅의 세 마리를 동시에 잡지 못하면 멋진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새해 우리는 과거의 토끼 사냥술에 대한 근본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토끼 두 마리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토끼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걸 한 방에 잡아야 진짜 프로다.

가장 중요한 한 마리를 잡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잡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창의성이다. 창의(意)에 실행(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창조(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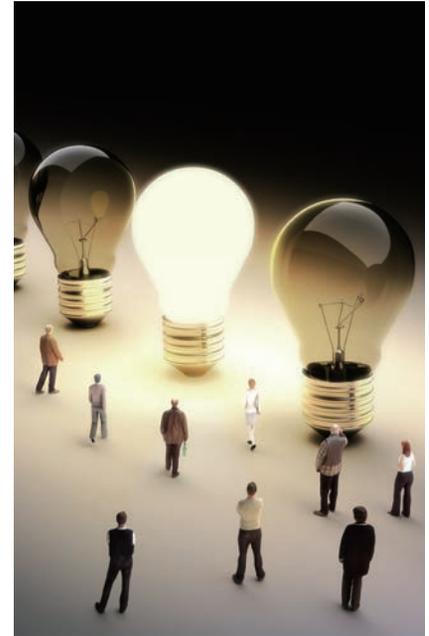
세 마리 토끼를 잡아라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 하면 그 가운데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같은 하이테크 시대에 옛말만 신봉하여 새로운 시도조차 접는 것은 일종의 패배주의이며 창조성에 대한 포기다.

과거 검색엔진을 보면 국내 업체들은 광고 배너가 먼저 뜬다. 그런데 구글(Google)에서는 첫 페이지엔 광고가 전혀 없다. 검색자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때 관련 업체 정보가 뜨는 구조다. 검색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차피 그 단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만큼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매칭 성공률이 높아 광고료도 높다. 따라서 검색자-검색업체-광고업체 3자 모두 만족하는 win-win-win 구조라 할 수 있다. 결국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례다.

전통 경영학의 생산관리 이론상 품질(Q)과 생산성(P)과의 관계도 양립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온 명제다. 그러나 현대적 최첨단 생산시스템상에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례가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생산시스템은 과거 ‘소품종 대량’ → ‘다품종 소량’ → ‘다품종 대량(mass customization)’ 시대를 지나 AI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공장에서는 ‘꿈의 변종변량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이미 품질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하나로 합친 ‘Qualitivity’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결국 초우량기업이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온 기업들이다.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미리 플랜B와 C를 함께 마련해두는 영리한 ‘교토삼굴(狡兔三窟)’의 디자이너이다. 거북이는 수영 못하는 토끼를 꼬셔 용궁으로 데려가는 전략적 사고의 소유자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건 늘 인간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볼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임포스터 증후군의 증상과 완화법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부담감을 자기확신으로 바꾸기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이는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성취했다라도 스스로 자신에 대해 형편없는 사람이라 믿는 태도라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불안과 우울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자신의 성취가 운, 우연이어서 과대평가되어 언젠가는 자신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 불안해하는 임포스터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가면 증후군의 주요 증상

- 1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칭찬할 때 나는 앞으로 내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 2 내가 현재 얻은 지위와 성공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 3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한다.
- 4 나는 최선을 다한 일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한다.
- 5 '너 똑똑하다, 너 대단하다'와 같은 칭찬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 6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실패할까 봐 걱정한다.



남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압도적인 성과물로 관심을 받는 것이 지속된다고 상상해보자. 마음이 편안한가? 칭찬이 계속되면 어깨가 으쓱해져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는 것만큼 다음에는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상담실 안팎에서 자주 만난다. 잘하고 싶지만 보상은 두려운 마음, 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더 흔하게 느끼는 정서이기도 하다.

'가면 증후군(임포스터 증후군, Impostor syndrome)'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뛰어나지 않다고 여기며 불안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증후군'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이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인구의 약 70% 정도가 가면 증후군을 경험해 본 적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례로는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미국 전 영부인이자 변호사인 미셸 오바마, 배우 나탈리 포트먼 등이 있다)도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이 과대평가 받는 것에 비해 실제로는 무능력하다는 느낌에 시달렸다고 한다.

가면 증후군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리고 임포스터('사칭하는 사람' 혹은 '사기꾼'이라는 의미) 증후군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내포하고 있어 실패보다 성공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 증후군이 심해지면 과도한 평가

불안, 긴장으로 최적의 수행을 할 수 없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성취감을 충분히 맛보기보다는 자신 안의 진짜 모습과 보여지는 내 모습 사이의 괴리만 커져 간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적응적 행동 두 가지가 '완벽주의적 노력'과 '미루기'다. 자신의 무능한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룸으로써 실패해도 되는 이유를 미리 만들어 둔다.

더군다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겸손이 미덕이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권장하지 않기에 내심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의상 '제가 아직 부족하다'와 같은 사회적 반응을 보여야 할 때가 많다. 『임포스터』의 저자인 심리학자 교수 리사 손에 의하면, 사람들은 실수를 할까봐 미리 못하는 척하며 상대를 덜 실망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로서 겸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한다면, 그것의 속 뜻에 대해 비틀어 생각하거나 이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상해 가정하지 말고 칭찬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아직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와 같은 말이 아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등의 칭찬 수용의 언어로 반응하자.

위와 같이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면 가면 증후군이 많이 나아진다. 또 다른 방략은 내가 평가당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몇 년 전, 각종 세계 영화시상식 현장에서 봉준호 감독의 소감을 유려하게 통역했던 샤론 최 또한 기고문에서 자신의 가면 증후군을 고백한 적 있는데, 그녀의 가면 증후군 극복 방법이 인상적이다.

"Yet I was constantly battling impostor syndrome, and an anxiety that I might misrepresent the words of someone... The only cures for stage fright were ten-second meditations backstage, and knowing that I was not they were seeing.(나는 끊임없이 가면 증후군에 시달렸고, 말을 잘못 통역할까 불안했다. 무대 뒤에서 10초 동안 명상하고, 그들이 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치유법이였다.)"

샤론 최는 자신이 가면 증후군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행 직전 명상을 통해 신체적 긴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중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의 전환도 했다. 가면 증후군이라는 극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평가의 연속인 우리 삶의 한 단면일 테다. 내면의 부담감을 끌어내고 자기 확신으로 채워 넣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발간…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이슈 & 2023년 활동 제언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감사위원회(ACI) 저널 22호’를 발간했다. 이번 ACI 저널 22호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022년도 주요 이슈와 2023년 활동 제언,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 방안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담았다.

이와 함께 김우진 ACI 자문위원·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022년도 주요 이슈와 2023년 활동 제언’을 주제로, 안수현 ACI 자문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저널 기고에 참여했다. 한편, ACI 저널 22호는 삼성KPMG 공식 홈페이지(home.kpmg.kr/ko/home.html)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KPMG·보난자그룹, 자금세탁·이상거래탐지 고도화 협약 체결



삼성KPMG RCS 문철호 전무(좌), 보난자그룹 김영석 대표(우)

삼성KPMG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원화 입출금 검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보난자그룹과 손잡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솔루션 고도화에 나선다. 삼성KPMG와 보난자그룹은 지난 2월 6일 역삼동 삼성KPMG 본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상거래탐지(FDS) 솔루션 고도화와 신규사업화를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보난자그룹이 보유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 블랙리스트 지갑주소를 필터링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컴플라이언스 관련 신규사업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2023 KPMG 아이디어톤 설명회’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



지난 1월 30일 ‘2023 KPMG 아이디어톤’ 설명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KPMG 아이디어톤’은 삼성KPMG가 주최하는 대학생 아이디어 대회로, 올해는 ‘자연어 모델로 기업 활동에 관련된 분석 방법 또는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2월 21~22일 양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류에 합격한 11개 팀을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브(YouTube Live)로 진행됐으며 양현석 전무가 Lighthouse 조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회 심사기준, 코치, 스태프 소개 등 국내 대회 진행 방식이 안내됐으며, 실시간 Q&A를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본 대회 우승팀에는 1,000만 원, 2등 500만 원, 3등 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1등 팀에게는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본부 인턴십 기회도 주어진다.

* Contact: 이다연 대리 dayeonlee@kr.kpmg.com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 발간

삼성KPMG K-SOX 조직이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이 지난 FY2021에는 46건으로 FY2020의 18건 대비 156% 이상 증가했으며, ‘자금통제 미비’도 지난 FY2021에는 27건으로 FY2020의 19건 대비 42%가량 늘었다. 한미 공통으로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는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19.9%, 미국 23.0%)이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 회사들의 자금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분장과 물리적·논리적 보안, 상급자 검토 통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KPMG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직전인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매년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삼성KPM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삼성KPMG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고서 관련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알.쓸.산.지]

CES 2023을 통해 ICT 산업 미래 살펴봐

IV. 최근 4년간 CES 트렌드 변화로 본 ICT 산업 전망

미래 ICT 산업 발전 방향

- ▶ 글로벌
 - 팬데믹
 - CES 2
 - 로봇시
 - 초분할
 - 새로운 동시예
- ▶ 메타버
 - 비대면
 - 메타버
 - 이에 따
 - 더욱 발전
- ▶ ESG
 - 코로나
 - 자립
 - CES 2
 - 사회적
 - 윤리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I. CES 2023 개요

CES 2023 개요

2023년 1월 5일~8일 진행된 CES 2023는 코노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인간 안보 등 기술들을 선보임

II. CES 2023 개요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는 스페인 MMIFA와 함께 세계 최대 ICT 박람회로 결합
- CTA(미국소비자기술회)는 1967년부터 CES를 미국 뉴욕에서 개최
- 1998년부터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 2021년 코로나사태로 100% 온라인 행사, 2022년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 2023년에는 완전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CES 행사를 진행
- CES 2023에서는 'Human Security for AI&IoT를 위한 인간 안보'를 다룬 다양한 기술을 통한 인류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혁신

Source: CTA(미국소비자기술회), 연봉포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공

삼성 KPMG

알.쓸.산.지

CES 2023을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Internal Use Only

January 2023

삼성KPMG 경제연구원

경제, 산업별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을 탐험해 보는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 지식)’가 지난 1월 13일,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팀즈 라이브(Teams Live)로 열렸다. 이번에는 2023년 계묘년 시작과 함께 ‘CES 2023을 통해 본 미래 ICT 산업’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류승희 선임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올해 CES는 모빌리티 기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전시 확대가 특징으로, 강연에서는 CES 2023 개요, 트렌드와 혁신 제품, 최고혁신상 수상작 등이 소개됐다. 특히 CES 주요 트렌드인 모빌리티, 로봇틱스, 인공지능(AI), Web3.0-메타버스 등을 소개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신제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Deal Advisory 고객 소통의 장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천억원의 향배를 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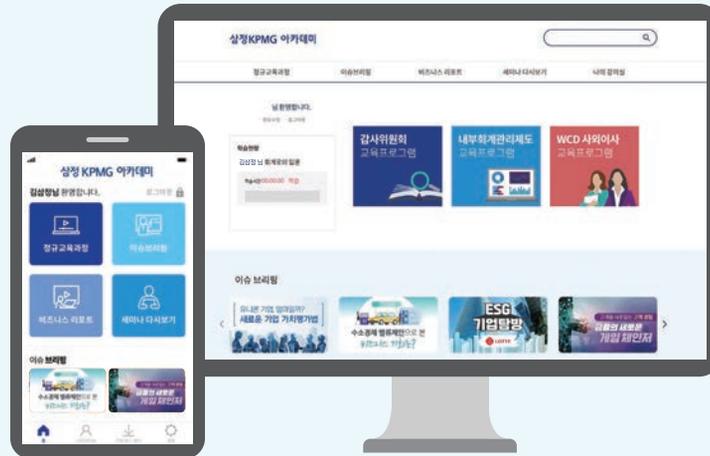
주식매매계약(SPA)의 이해와 주요 쟁점

2023. 1. 27. (법무법인(유) 세종 정혜성 변호사)

‘Deal Advisory 고객 소통의 장’, SPA의 이해와 주요 쟁점 사항 다뤄

삼성KPMG는 1월 27일 ‘Deal Advisory 고객 소통의 장’을 팀즈 라이브(Teams Live)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세종 정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한국 M&A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인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해 다뤘다. 정 변호사는 SPA의 기본 구조 및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계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이슈를 설명했고, 가능한 분쟁 관련 조항 및 실제 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삼성KPMG 아카데미,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차이' 외 신규 콘텐츠 추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아카데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삼성KPMG 아카데미 신규 콘텐츠가 추가됐다. 먼저 감사위원회 교육 과정으로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 명예교수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차이' 강의와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으로는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전영순 교수의 '회계로의 입문' 강이가 추가됐다.

이슈브리핑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시대, 일하는 방식의 혁신 전략은?' 보고서를 비롯해 비즈니스 리포트에 'ACI Monthly Newsletter_2023. 1',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K-SOX Newsletter_2023. 1', '2023 게임 산업 10대 트렌드', '넷제로(Net Zero)로 가는 길,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에너지 믹스', '3세대 신약 디지털 치료제의 투자 동향'과 '미래 전략 이커머스 시장 재편과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가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삼성KPMG 아카데미는 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산업별 동향을 소개하는 다양한 영상 및 발간물 콘텐츠를 제공한다.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유롭게 교육 과정 수강 및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Contact: 삼성KPMG 아카데미 kr-fmacademy@kr.kpmg.com, 02-2112-7731

Notice

1. 외부 세미나

2023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주제: 2023년도 개정세법 주요 개정 사항

- Session 1: 국세기본법/법인세법
- Session 2: 조세특례제한법
- Session 3: 국제조세/소득세법
- Session 4: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
- Session 5: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14:00~17:20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

신청: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문의: 윤이나 대리

(02-2112-0269, yinayoon@kr.kpmg.com)

2. 사내 행사

'제2회 삼성KPMG 챔피언십 골프대회' 개최

일시: 4월 17일(월) 챔피언십 대회 공지

5월 11일(목) 선수 엔트리 제출

5월 17일(수) 대회 조 추첨 행사

5월 23일(화) 개막식 및 예선 시작

선수 참가 자격: 삼성KPMG Director 이하 누구나 참가 가능

장소: 회사 인근 스크린골프장(추후 안내)

문의처: KR-FM Championship

kr-fmchampionship@kr.kpmg.com

비고: 본부별 단체전, 본부 출전 선수 6명으로 확대 (주전 4명+예비 2명)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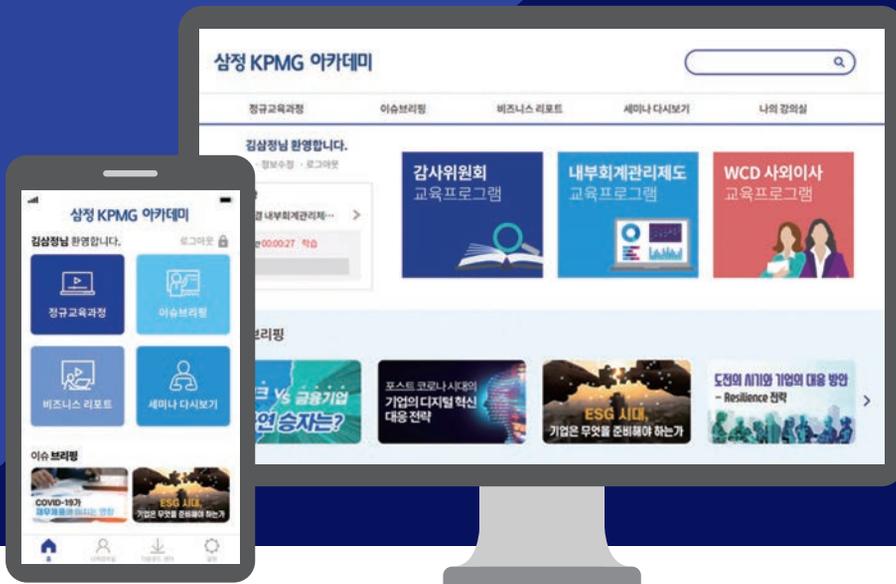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